

서울 워킹맘·워킹대디의 현주소

- 결혼부터 쉽지 않아, 2022년 서울 35~36세 청년 15.8% 현재도 향후에도 결혼 NO
-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실, 2023년 서울 합계출산율 0.55명
- 서울 워킹맘 30.3% 워킹대디 46.4% “육아휴직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
- 워킹맘·대디 하루 휴식시간은 1시간 남짓, 가사·자녀돌봄은 워킹맘이 2배 많아
- 워킹맘 가정에서는 비워킹맘 가정보다 ‘돌봄공백’ 더 힘들어
- 서울 맞벌이 가정 23.6% 우울문제 겪고 있어

결혼부터 쉽지 않아, 2022년 서울 35~36세 청년 15.8% 현재도 향후에도 결혼 NO

- 2022년 서울 청년 중 현재 미혼이지만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혼 비율은 30~34세가 14.8%, 결혼 적령기인 35~36세는 15.8%
- 2023년 서울의 연간 혼인건수는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표 1] 서울청년의 혼인상태

(단위: %)

구분	미혼	비혼	기혼
30~34세	64.3	14.8	20.9
35~36세	46.5	15.8	37.7

주: 2022년 서울 거주 만 19~36세 내국인 5,265명 대상 비대면 전자조사 결과
자료: 서울연구원, 2022,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표 2] 서울 혼인건수

(단위: 건)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내용	70,466	64,193	44,746	37,012	35,752	36,32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실, 2023년 서울 합계출산율 0.55명

-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 현세대 남녀 100명이 증손자 세대에는 자연증가가 2.1명으로 줄어들어

[표 3] 2023년 서울 합계출산율 의미

구분	현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
내용	남녀 100명	남녀 27.5명	남녀 7.6명	남녀 2.1명

자료: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서울 워킹맘 30.3% 워킹대디 46.4% “육아휴직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

- 2023년 0~9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 워킹맘 30.3%, 워킹대디 46.4%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응답
- 실제로 2023년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고충상담은 노동권(32.2%)과 육아휴직(26.6%) 가장 많아

[표 4] 육아휴직 제도 관련 응답률(취업자 대상)

(단위: %)

구분	육아휴직 제도 이용 비율	현재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제도 이용 분위기					합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	별로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	보통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매우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남성	19.7	14.1	32.3	21.9	24.1	7.5	100.0
여성	63.2	8.6	21.7	14.5	30.3	25.0	100.0

주: 서울 거주 만 0-9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20-64세 기준자 대상, 유효표본은 807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표 5] 2023년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세부 상담현황

(단위: %)

구분	대분류				세분류									
	직장	가족 관계	개인	합계	임신기 보호제도	출산전후 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근 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제도	직장맘 노동권	사업주 지원금	기타	합계
내용	98.4	0.5	1.1	100.0	4.3	15.3	0.1	26.6	12.7	2.3	32.2	6.4	0.1	100.0

주: 서울 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 전역에 3개 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를 두고 있음. 참고한 자료는 서남권지원센터에서 발행되고 있는 리포트임
 자료: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애뉴얼 리포트,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워킹맘·대디 하루 휴식시간은 1시간 남짓, 가사·자녀돌봄은 워킹맘이 2배 많아

- 2022년 하루 개인활동과 휴식시간은 워킹맘이 1.4시간, 워킹대디는 1.5시간으로 1시간 남짓
- 워킹대디는 직장생활/경제활동 시간이, 워킹맘은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표 6] 경제활동 상황별 양육자 시간 활용 현황

(단위: 시간)

구분	수면	식사와 간식섭취	개인유지	직장생활/경제생활	이동	가사	자녀돌봄	개인활동	휴식	기타
맞벌이 가구 엄마	8.3	1.2	0.8	7.5	1.2	1.3	2.1	0.6	0.8	0.1
맞벌이 가구 아빠	8.2	1.3	0.7	8.9	1.4	0.6	1.2	0.7	0.8	0.1

주: 1) 2022년 기준 서울 거주 0-9세 자녀 양육자 1,500명 대상 비대면 전자조사 결과
 2) 본 통계는 30분 단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로, 자정 이후 6시까지의 시간은 수면시간으로 처리되어 실제 수면시간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서울연구원, 2022, 서울 영유아 양육여건 기초통계조사분석

워킹맘 가정에서는 비워킹맘 가정보다 ‘돌봄공백’ 더 힘들어

- 2023년 부모로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워킹맘 가정에서는 ‘돌봄공백’이 비워킹맘 가정보다 어려움으로 작용

[표 7] 부모로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자녀 질병으로 등원/등교하지 못할 때 등)	신체적 어려움(피로감/수면 부족 등)	정신적 어려움(양육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불안)	재정적 어려움(양육비 사교육비 등)	직업적 어려움(일가정 양립 등)	관계적 어려움(부모의 역할 등)	공간적 환경적 어려움(좁은 주거공간, 환경오염 등)
워킹맘 가정	53.1	64.0	53.1	48.4	52.6	30.5	38.9
비워킹맘 가정	30.1	62.0	55.7	53.6	57.8	23.2	36.1

주: 1) 서울 거주 만 0-9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20-64세 기준자 대상, 유효표본은 807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 대체로 어렵다 + 매우 어렵다 응답률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서울 맞벌이 가정 23.6% 우울문제 겪고 있어

-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일·생활 균형정도는 '일에 치여 삶의 목표를 잃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워킹맘·워킹대디 10명 중 3명은 직장에서 집 걱정, 퇴근후에도 일 걱정을 했다고 응답
- 서울 맞벌이 가정의 우울 경험률은 23.6%, 불안 15.8%, 불면증 20.8%, 자살생각 8.6%로 나타나

[표 8] 최근 3개월 동안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단위: %)

구분	일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쓰지 못했다	집안일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에서 집안일을 처리할 때가 많았다	퇴근 후에도 일에 대한 걱정을 했다	직장에서도 집안일을 걱정했다
워킹맘	25.7	27.0	19.4	16.7	31.1	36.0
워킹대디	26.6	20.4	18.1	12.5	34.0	32.3
구분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기도 했다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일을 까먹은 적이 있다	가족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일이 바빠서 내 삶에 대한 비전과 반성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일에 치이다보니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있었다	-
워킹맘	30.2	14.9	12.6	36.5	43.7	-
워킹대디	14.7	13.9	13.0	34.8	38.8	-

주: 1) 서울 거주 만 0-9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20-64세 기혼자 대상, 유효표본은 807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률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표 9]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단위: %)

구분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생각
부모 모두 경제활동	23.6	15.8	20.8	8.6
아빠만 경제활동	23.7	16.0	17.9	10.7

주: 서울 거주 만 0-9세 자료를 둔 양육자 555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 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